

2017년 통권 제 27권 3호

2017年度 史學科 秋季學術古蹟踏查



亞洲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목차

- 답사 일정
- 답사를 준비하며
- 우리가 가는 길
- 지역개관: 남양주, 양평, 여주

<첫째날>

1. 홍릉
2. 유릉
3. 광해군 묘
4. 정약용 생가와 묘소
5. 한음 이덕형 선생 영정각
6. 용문사

<둘째날>

7. 영릉(세종)
8. 영릉(효종)
9. 명성황후 생가

답사 일정



2017년 사학과 추계 학술 고적 답사

2일차 <9월 23일 토요일>

8시 기상

9시 출발

09:00 ~ 09:10 민지뻘다귀해장국(이동)

09:10 ~ 10:10 아침

10:10 ~ 10:20 영녕릉(이동)

10:20 ~ 11:50 영녕릉

11:50 ~ 12:00 명성황후생가(이동)

12:00 ~ 12:50 명성황후생가

12:50 ~ 14:00 아주대학교도착

1일차 <9월 22일 금요일>

10:00 ~ 11:00 이동(홍유릉)

11:00 ~ 11:30 홍유릉

11:30 ~ 11:40 이동(광해군묘)

11:40 ~ 12:00 광해군묘

12:00 ~ 12:30 정약용생가(이동)

12:30 ~ 13:30 점심

13:30 ~ 14:15 정약용생가

14:15 ~ 14:30 이동(영정각)

14:30 ~ 14:50 영정각

14:50 ~ 15:30 이동(용문사)

15:30 ~ 17:00 용문사

17:00 ~ 18:00 옥천유스텔(숙소이동)

18:00 ~ 19:00 저녁

19:00 ~ 19:40 정비

19:40 ~ 22:00 세미나 및 레크레이션

답사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2017년 사학과 학생회 ‘같이가치’ 회장 13학번 임정근입니다. 학생회장을 맡은 지 수개월이 지나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아쉬워합니다. 2번째 답사준비인 만큼 1학기에 부족한 점이 있나 생각해보려 하였고, 답사준비에 앞서 춘계학술답사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사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춘계학술답사에서는 근래에 가장 많은 인원인 72명이 참여하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았던 답사로 기억되길 바라지만 부족함이 눈이 띄어 욕심이라 생각하고, 이 추계학술답사에서는 춘계학술답사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하려 하였습니다. 춘계학술답사는 숙소의 편안함과 거리의 단축 등 편의에 신경을 두고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학술고적’답사의 이름에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학회의 부재로 세미나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지방에 가기 힘든 유적지를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추계학술답사는 편의와 학술을 다 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름방학동안 ‘같이가치’ 학생회에서 부회장, 국장들과의 회의로 답사주제와 지역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많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주제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초점을 맞췄고 지역을 정하는 것에서는 편의를 생각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보다는 가까운 경기도로 정했습니다. 조선시대와 경기도를 조합하여 ‘한강, 조선을 흐르다’라는 최종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나오고 추계학술답사의 완성을 위해 부회장, 국장들과 함께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전답사에서는 동선체크 및 유적지 접근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전답사 후 이번 답사에서 편의성은 지역과 주제로 쉽게 접할 수 있던 것을 넣었고, 반면 학술성은 살면서 가기 힘든 장소와 세미나를 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살면서 가기 힘든 장소는 현재 이번 답사에서 가는 ‘광해군묘’와 ‘영정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해군묘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고, 영정각은 덩그러니 길가에 세워져 있어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고 가면 보지 못할 곳입니다. 세미나를 행하는 것은 최근 학과와 소학회간의 관계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소학회가 2학기에 계획한 일정과 겹쳐 무리일 수도 있어 이번에는 세미나보다는 소학회 특정 활동을 위주로 하여 절충안을 잡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절충안이 계기가 되어 답사 세미나에 대한 지원과 세미나가 사라지지 않는 발판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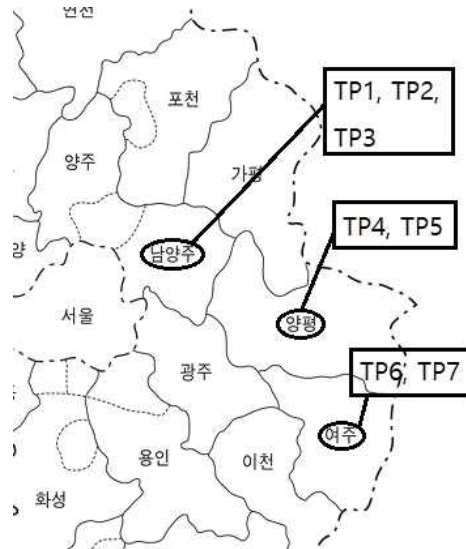
답사를 준비하며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파악해주었던 부회장 안지영, 부족한 예산을 조개가며 저와 예산 관리하느라 힘

들었을 사무국장 이서영, 퀄리티 높은 답사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답사에는 안타깝게 참여하지 못한 홍보국장 김효진, 소학회 회장 겸임과 함께 답사유적지 발표 준비로 바쁜 학술국장 신현우, 그리고 휴학생이지만 학과 일에 신경써주고 있는 기획국장 최윤환, 그리고 답사준비를 하는데 힘이 된 ‘같이가치’ 국원들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제 친구로 춘계사전답사와 추계사전답사 여러 번의 사전답사를 위해 일을 빼고 운전을 해준 최용학에게도, 예산 부족으로 물품 지원을 해준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답사가 끝나는 날까지 유익하고, 안전한 답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13학번 임정근

우리가 가는 길



	TP1	TP2	TP3	TP4	TP5
9월 22일 (금)	홍유릉	광해군 묘	정약용 생가와 묘소	한음 이덕형 선생 영정각	용문사
	TP6	TP7			
9월 23일 (토)	영녕릉	명성황후 생가			

남양주 지역개관

17 박지은



▲ 양주, 대동여지도

남양주시는 경기도 중부에 위치해있는 도농복합시이며 한강 유역에 속해있다. 남양주는 양주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옛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나온 행정구역이다.

남양주시의 역사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된다. 현 남양주시의 진접읍·진건면 일대는 마한 54국 중 고리국에 해당한다. 삼국시대의 남양주는 백제와 인접하여 백제 영역에 포함되었고 백제 문화를 향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개토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는 고구려에게 점령되었으며 한강 유역인 남양주는 광개토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도 삼국간의 대립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양주의 진접읍·진건면 일대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한주(漢州)에 속하며, 757년(경덕왕 16년)에는 지방 9개 주의 명칭을 비롯한 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이때 남양주를 고구려 행정구역 명칭이었던 골의노현에서 황양현(荒壤縣)으로 개칭하여 통일신라 당시의 남양주는 한주 한양군 황양현으로 불렸다.

983년 고려 성종은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고 12목에 양주가 포함되었으며 최고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승격하였다. 그 이후에는 절도사, 지주사로 강등되기도 하였으나 1067년에 남경으로 다시 승격된다. 고려 말(충렬왕 34) 한양부로 격하되었고 공민왕의 반원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다시 남경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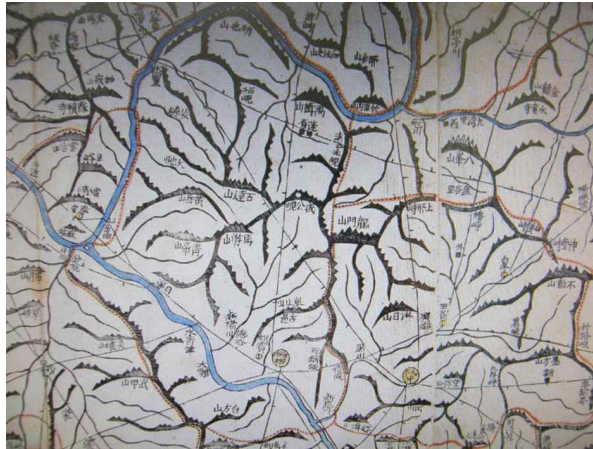
조선 시대에는 남양주가 왕릉지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현재 남양주에 있는 왕릉은 홍릉, 유릉, 광해군묘, 광릉, 사릉이 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상위 행정구역인 양주목만 지도에 나타나있을 뿐 자세한 남양주 지역은 표시되어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조선 초기 남양주 지역은 양주목에 속현인 풍양현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풍양현은 세도 정치기 외척 가문 중 하나인 풍양 조씨의 본관으로 유명하고 그 시조인 조맹의 묘가 남양주 진건읍에 있다. 또한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의 고향으로 서재와 독서, 침잠하기에 적당히 알맞고 좋다 하여 여유당(與猶堂)이라 불렀다는 정약용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남양주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여 수도 방어의 외곽지대에 해당하는 군사적 요지로 활용 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으로 인해 1908년에는 연합의병부대였던 ‘전국 13도 창의군’의 집결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양주 지역은 의병뿐만 아니라 의병을 토벌하려는 일본군의 유입이 많아졌고 남양주 지역민들에게 일제의 침탈과 만행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양평 지역개관

17이승현



▲ 양평, 대동여지도

양평군은 한반도의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기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곳의 군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지리적 여건으로 중앙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어 과거에 양평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양평군(楊平郡)은 조선시대까지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지역이었다.

양근군은 고구려시대에 향양군, 신라시대에 빈양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시대 초기에 다시 양근으로 개칭하여 광주에 속하게 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익화(益和), 고려 고종 때 영화라 칭해오다가 고려 공민왕 5년에 군으로 부활되면서 양근군으로 개칭(1356)하였다.

그리고 지평군은 고구려시대에 지현현, 신라시대에는 지평, 조선시대에는 지제, 고종 32년에는 지평군(1895)으로 칭하였다. 그러나 190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군이 통합되면서 양근과 지평에서 한 글자씩 따와 양평이라는 하나의 군으로 탄생하였다.

대동여지도와 동국여지승람을 비교해보면 대동여지도는 지도이고 동국여지승람은 지리서이다. 그래서 지리적인 정보 즉, 동국여지승람에서 ‘양근군, 지평현에는 용문산이 있다.’ 혹은 ‘양근군에는 1개의 역참이 있다. 지평현에는 3개의 역참이 있다.’라는 정보는 대동여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토산

물, 학교, 인물 등에 대한 정보는 대동여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양평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태고 보우, 화서 이항로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양평 의병 등이 있는데 이중 양평의병은 이번 추계답사지인 용문사와 관련이 있다. 대한제국 때 용문산과 용문사는 양평 의병들의 근거지였다. 또한 수령이 1,100년이 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심었다는 설과,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고 갔는데 그것이 자랐다는 설도 전해진다.

여주 지역개관

16 김기영



▲ 동국지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주 기본사항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여주시는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과 맞닿아 있어 총 3개의 도에 접하여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광주산맥 등 산맥들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라는 점과 시의 중심에 한강이 흐르는 이점을 바탕으로 옛날부터 농업이 발달했으며, 본래 2013년도 9월 23일 이전까지는 여주군이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와 농업이 결합된 복합도시 형태의 시로 개편되었다. 또한,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먼 탓에 경기도 내 다른 시들에 비해 성장이 더디며, 인구 역시 111,033명(2015)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선 영조시기에 정삼기가 만든 동국지도에서 여주를 찾아본다면, 육안으로는 한강줄기가 흐르는 곳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사실 동국지도는 화성이 지어지고 난 뒤, 그려진 것이라 수원부에 대한 묘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수원 주위인 여주 역시 묘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팔도지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여주의 위치는 동국지도와 팔도지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만으로는 여주시의 과거 위치가 어디였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여주 지명의 역사

여주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리적 이점 덕분에 예부터 천혜적 지리환경으로 일컬어졌다. 연양리 구석기 유적, 신석기 시대 유적인 간돌화살촉, 빗살무니토기편이 발견된 것을 통해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으며. 476년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 골내근현(骨乃斤縣)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에 지정됨을 시작으로 통일신라의 황효현, 고려의 황려현, 영의현, 여흥군, 조선의 여흥부 등의 수많은 이름을 거쳐 1469년 여주목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 후,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1895년 충청북도 여주군으로 개편되나, 1년 후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여주의 유적지

여주시는 구석기부터 신석기,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까지 오랜 역사가 여주 땅 위에서 쓰였고 많은 자취들이 남겨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세종대왕 영릉, 효종대왕 영릉, 여주 석우리 선돌, 여주 혼암리 선사유적 등 매우 다양한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 우리가 답사할 세종대왕 영릉, 효종대왕 영릉, 명성황후 생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세종대왕 영릉, 문화재청

첫 번째는 세종대왕 영릉으로,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한 이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유택[무덤]이다. 세종대왕은 부왕이었던 태종의 헌릉 곁에 자신이 묻히길 바랐고 이 후, 세종대왕의 바람대로 소헌왕후와 함께 이곳에 안장되어 조선 왕조 최초의 합장릉을 이루게 되었다.

두 번째로 효종대왕 영릉 역시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하였고, 효종대왕과 그 부인 인선왕후 장씨의 유택이다. 이 왕릉은 쌍릉 형식을 띄고 있는데, 세종대왕과는 다르게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장씨를 위 아래로 배치하는 특이한 형태의 유택을 띄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재실이 딸려있어 제사에 필요한 도

구들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 효종 대왕 영릉의 제실은 왕릉 제실의 기본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다고 평가받는다.



▲ 명성황후 생가, 문화재청

마지막으로 고종 황제의 비인 명성황후의 생가인데, 이 집은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세까지 살던 집이다. 17세기 당시 남아있는 건물은 안채뿐이었지만, 1995년에 행랑채, 사랑채, 별당채 등이 복원되어 그 면모를 다시 드러냈다. 이 후, 생가 앞에 명성황후 기념관까지 건립되었으며, 시해장면을 재현한 영상물과 당시 시대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여주시는 이와 같은 조선시대 유적 뿐 아니라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 삼국시대 유적, 불교 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는 인문의 도시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오랜 세월을 걸쳐 여주 시내로 힘차게 흐르고 있는 한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지나왔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중에서도 조선의 역사를 보다 중점적으로 재조명해보기로 한다.

9월 22일

첫째 날

1. 흥릉
2. 유릉
3. 광해군 묘
4. 정약용 생가와 묘소
5. 한음 이덕형 선생 영정각
6. 용문사

홍릉(洪陵)

17 유승미



▲ 홍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홍릉은 조선 26대 왕 고종과 비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무덤이다. 현재 5개의 조선 왕릉으로 이루어진 고양 서오릉에 속해 있다. 경복궁 곤녕전에서 죽임을 당한 명성황후는 1897년 11월 21일에 서울 청량리에 묻혔고 고종은 1919년 1월 21에 덕수궁 함녕전에서 숨을 거두어 현재 위치에 3월 4일에 예장되었다. 그리고 그 때 명성황후 능이 풍수지리상으로 불길하다는 이유로 장이되어 고종 능에 합장되었다.

영조는 정성황후의 능지를 정하면서 나중에 함께 묻히고자 하여 오른쪽 자리를 비워뒀고, 석물도 쌍릉을 예상하여 배치하였다. 하지만 정조가 홍릉의 자리를 버려두고 원릉으로 영조의 능지를 정함으로써 오른쪽 공간은 빈 터로 남게 되었다. 홍릉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황제릉의 양식에 따라서 태조의 효릉을 본 떠 조성되었다. 또 기본적으로 숙종의 명릉 형식을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었고 『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홍릉은 불갈비의 원조’가 됨으로써, 창 의와 연구의 원래 기능과는 대비되는 소비문화를 낳기도 했다.

능 상설의 특징은 대한제국의 선포에 따라 황제가 됨으로써 능역 조성도 명나라 태조의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지금까지 없었던 구조물이 대폭 확장되었다. 양석과 호석 대신 능침 앞에서부터 기린, 코끼리, 사자, 해치, 낙타 각 1쌍, 마석 2쌍을 2단의 하대석 위에 올려놓았다. 또 3면의 낮은 담으로 둘러싸인 능에는

병풍석이 없고, 봉분은 12칸의 난간석에 에워싸여 있다.

홍릉수목원



▲ 홍릉수목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홍릉수목원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한국 최초의 수목원이다. 1922년 고종비 명성황후 능이 있던 홍릉 지역에 임업시험장을 설립하면서 면적 44만 m²로 조성되었다. 처음에는 버드나무원, 오리나무원, 고산식물원, 관목원, 약용식물원 등으로 관리하였고, 1948년까지 전국에서 수집한 식물표본이 4천여 종 30만 점에 달하였으나 6·25전쟁 중 대부분 소실되었다.

1960대 중반부터 확대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북한 지역 자생 수종을 제외하고 총 157과 2,035종의 국내 식물 2만여 개체를 수집 식재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석엽 등 각종 표본 4,245종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선 다양한 임업 시험과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1970년대 초부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홍릉수목원은 국내외의 식물유전 자원 총 2035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알린다는 풍년화, 남한에서 오직 한 그루뿐인 풍산가문비나무, 중국원산의 백송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홍릉수목원은 근대 임업시험 연구의 최초 시험지라는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유릉(裕陵)

17 이재원



▲ 유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릉은 서울 중심으로부터 20km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봉산(묘적산, 표고589.9m)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홍릉 서쪽으로 뻗은 능선 허리 해발 70m 부근 북서방향으로, 유릉은 홍릉 능침에서 좌측으로 뻗어나간 능선 300m 전방의 좌측 60m 부근 정서쪽 방향에 능침이 위치하고 있다. 유릉은 대한제국 2대 순종 효황제와 첫 번째 황후 순명효황후 민씨와 두 번째 황후 순정효황후 윤씨의 능이다. 유릉은 합장릉의 형태로 한 봉분 안에 세분을 같이 모신 동분삼실 합장릉의 형태이다. 유릉은 홍릉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선왕릉을 계승하고 명나라의 황제릉을 인용한 대한제국의 황제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에 최초로 조성된 왕릉으로서 다른 왕릉과는 달리 5개월을 넘겨 조성된 유일한 왕릉이다. 또한 유릉은 조선왕릉 중 한 봉우리에 3개의 방을 만든 동봉삼실릉은 유릉 뿐이다. 유릉은 12면의 면석에 꽃무늬를 새긴 병풍석과 12칸의 난간석을 세웠고, 무덤 아래에는 침전이 정자각을 대신하였으며 그 아래 문·무석인, 기린, 코끼리, 사자상 등을 배치하였다.



▲ 홍유릉, 대한민국 여행사진

홍유릉은 조선 제26대 고종황제(高宗皇帝)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합장릉인 홍릉(洪陵)과 순종황제(純宗皇帝)와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계비인 순종효황후(純貞孝皇后)의 합장릉인 유릉(裕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유릉은 고종이 1897년 명성황후를 청량리 홍릉에 안장한 이후 중국에 황제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홍릉의 위치를 지금의 금곡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왕·공족의 분영은 묘로 한다는 정책을 펼친다. 왕의무덤인 능(陵)도 세자무덤인 원(園)도 아닌 일반인의 무덤인 묘(墓)로 격하시키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고종은 황제릉의 양식을 빌어 홍릉 천장을 계획하던 중 일제에 의해 강제퇴위 하게 되었고 결국 홍유릉은 조성되지 못하였다. 홍유릉의 조성은 황제릉을 조성시키고자 하였던 고종의 의지로 시작되었으나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승하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일본에서 조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왕릉이 되었다.

광해군 묘 (光海君 墓)

17 최 건

광해군 묘 (光海君 墓)



▲ 광해군 묘(光海君 墓), 답사여행의 길잡이

광해군 묘(光海君 墓)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조선의 임금 광해군의 묘이고 사적 제 363호이다.

조선 제 15대 왕 광해군(光海君, 1575~1641)과 부인 류 씨의 무덤으로 되어 있다. 무덤 주위에는 돌로 만든 식물들이 있고 분이 두 개인 쌍분[같은 뒹자리에 합장하지 아니하고 나란히 쓴 부부의 두 무덤]으로 되어 있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1623년 3월 폐비 유 씨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이후 제주도로 이배[귀양살이하는 곳이 다른 곳으로 옮겨짐]되었고 이곳에서 1641년 죽었다. 장사를 지낸 이후, 1643년 10월에 지금의 묘로 이동했다. 부인인 유씨의 명칭은 문성군부인 유씨(文城君夫人柳氏)이며 선조가 왕이던 시절 세자빈으로 발탁되었고 광해군의 즉위년인 1608년에 왕비가 되었다. 유씨는 광해군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었으며 유배된 해에 죽어 먼저 장사를 지냈다.

조선의 제 15대 왕 광해군, 엇갈린 평가?

광해군(光海君, 1575~1641)은 조선의 15번째 왕이고 재위기간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다. 선조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은 평화롭던 시대가 아닌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이 발생했을 당시 국난을 대비하자는 명분으로 피난지에서 세자로 책봉되었다. 피난 당시 선조는 의주로 가게 되었고 광해군은 평안

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광해군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고 군사들 또한 모집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가 죽자 임진왜란 동안 공을 세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왕위에 올랐어도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선조의 13번째 왕자이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8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다]을 지지하고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을 제거했다. 또, 그 당시 조선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 왕위의 정통성을 확인하곤 했는데 광해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광해군은 의문을 와해하기 위해 명나라가 지목한 임해군(臨海君, 1574~1609)에게 미친 짓을 하도록 시켰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위협을 받았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래도 광해군은 나라를 발전하고 안정하기 위해 힘을 썼다. 광해군은 외부적으로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조선시대에 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을 실시했고 폐허가 된 궁궐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다. 내부적으로는 선조실록(宣祖實錄),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을 편찬하였고 간행하지 못하고 있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등을 다시 간행하는 등 서적 관련해서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외적으로는 만주에서 성장한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고 조선에 압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비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국경의 방어에 힘을 썼다. 또한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당시 강홍립에게 명의 원군요청에 대해서 지원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후금에게 투항하게 하는 중립외교를 진행해 나라 간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정약용 생가와 묘소

17 홍채은

정약용(1762~1836)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근기(近畿)이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다방면에서 고루 재능을 보인 인물이다. 정조의 총애를 받아 벼슬살이를 했으나, 당파싸움과 천주교 박해에 휘말려 긴 유배생활을 하였다. 긴 유배생활동안 그는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하여 육경사서(六經四書)[유교의 여섯 경전(시경·서경·악경·역경·예경·춘추경)과 네 가지 경서(대학·논어·맹자·중용)]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이서[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휼심서] 등의 모두 500여권을 저술 하였다. 이러한 저술활동을 통해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해 그는 이익(李瀾)의 사상을 이어받아 각종 사회 사회개혁사상을 구축하여 '목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전 분야에서 영향을 끼친 그의 사상은 조선왕조의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상황을 개량하고자하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에 왕조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교적 사회에서 중시해 오던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 이라는 뜻으로, 나라와 백성 모두 편안한 상태를 표현.]'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약용 생가와 묘소



▲ 정약용 생가와 묘소

정약용의 생가와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정약용이 태어나고 전라도 강진에서의 긴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마친 곳이다. 정약용의 생가는 서재와 독서, 침잠하기에 적당히 알맞고 좋다고 하여 여유당(與猶堂)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생가인 여유당(與猶堂)은 홍수에 떠내려가 1975년 복원한 것이다. 전통 한옥에 뚜렷한 ㅁ자20칸 집이고, 오른쪽에 사당, 왼쪽에는 생전의 유품을 수집·정리한 유물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생가 왼쪽으로는 ‘與猶堂’(여유당)이라 새긴 비머리돌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생가를 정면 발치에 둔 묘가 소박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곡장[능이나 원, 예상한 무덤 뒤의 주위로 쌓은 나지막한 담]에 쌓인 봉분 앞엔 상석과 향대가 있고 오른쪽엔 비석이 있으며, 양 옆 멀찍이에 혼유석[능원이나 묘의 봉분 앞에 놓는 장방형의 돌]이 나앉았다.

정약용의 묘소의 요소 중 특이점은 묘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묘지명을 정약용이 환갑이 되어 죽기 전에 자신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이라고 한다. 자찬묘지명은 자전문학의 전통의 일부로 존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조부터 조선조에 걸쳐 꾸준히 지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은 일반적인 자찬묘지명과 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산의 자찬묘지명을 보면, 광중본(曠中本)과 집중본(集中本) 2편이 존재한다는 점, 비본(祕本)으로 전해졌다는 점, 특히 집중본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다는 점은 자찬묘지명의 일반적 사례에 비교하여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의 특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광중본과 비교해 집중본의 양적 방대함뿐만 아니라 생애의 중심사건과 일화도와 밀도 면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정조와의 일화가 양과 빈도 면에서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묘지명이 본래 고인의 생애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양식이지만 이는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총애가 극진하게 드러나며, 몇몇의 에피소드에서는 정조의 말과 비답을 생생하게 회상해 적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의 저작을 정리한 내용이 전문의 상당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의 전문 중 2/5가 자신의 저작내용에 관해 썼다. 이는 정약용이 자신의 저작과 학문적 성취가 자신의 유배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집중본과 광중본에서 서술하는 서교(천주교)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광중본에서는 서교(천주교)에 대한 관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집중본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광중본에 비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대표저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여유당전서 중심으로



▲정약용의 저서(순서대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여유당전서)

정약용은 장기간의 유배생활 동안 500여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다. 그 중 대표적인 저서 4개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경세유표(經世遺表)

1817년(순조 17)에 제작된 정약용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책. 주요내용은 토지제도개혁과 민생안정, 기술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44권 15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필사본으로 되어있다(필사연기는 미상). 원제명은 ‘방례초본(邦禮草本)’이며, 미완성작 이다. 앞머리에 <방례초본인邦禮草本引>을 붙여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경세유표는 개혁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주례>>의 이념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조선의 시대현실에 맞도록 정치·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년(순조 18)에 제작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고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고 있으며, 관의 입장이 아닌 민의 입장에서 저술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관원을 면직함]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이 16세부터 31세 까지 그의 아버지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임지에 따라가서 견문을 넓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약용 자신도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서에 자신의 경험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목민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령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민심서는 목민관은 민을 위해 수령의 본분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흙흙신서(欽欽新書)

1819년 (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간행된 정약용의 형법서이다.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세유표(經世遺表)·목민심서(牧民心書)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저서이다. 정약용은 살인사건의 해결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이 율문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에 따라 생명존중 사상이 무너지는 것을 개탄하였고 이를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흙흙신서는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심리·처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흙흙신서는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학·사실인정학·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술을 총 정리한 문집으로, 154권 76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4~1938년에 걸쳐 신조선사에서 발행되었으며 이

책의 편자는 외현손 김성진이며, 정인보와 안재홍이 함께 교열에 참여하였다. 여유당전서의 내용을 편집 순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두 7집으로, 제 1집은 25권 12책으로 시문집, 제2집은 48권 24책으로 경집(經集), 제3집은 24권 12책으로 예집(禮集), 제4집은 4권 2책으로 악집(樂集), 제5권은 39권 19책으로 정법집(政法集),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집(地理集), 제7집은 6권 3책으로 의학집(醫學集)으로 구성되어있다.

한음 이덕형 선생 영정각

17 김혜원



▲ 한음 이덕형 선생의 초상화

한음 이덕형 선생 영정각

영정각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한음 이덕형 선생의 묘아래, 신도비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다. 1977년 광주이씨 문중에서 건립하였고, 영정각과 홍살문, 경중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 3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건물 안에는 이덕형 선생의 전신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 영정은 초상화가인 이신흙 화가가 이덕형 선생의 젊을 때인 1590년대에 그렸다. 해마다 이곳에서 이덕형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영정제를 지낸다.

조선 역사 최연소 대제학, 한음 이덕형 선생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한음(漢陰) 이덕형 선생은 능력과 경력이 뛰어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명신이다. 그는 조선조 사상 최연소인 31세에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과 성균관 지사 등을 겸직했고, 38세에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일생 동안 대제학과 영의정을 각각 세 차례 지내는 등 내외적으로 큰 활약을 했다.

특히 이덕형 선생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덕형 선생은 덕망이 뛰어나 명나라에게 원군을 청하는 일과, 임진왜란에서 왜적과의 협상이나 명 장수들을 접대하는 일을 맡으며 최고의 요직에 임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도 당시의 사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나라를 올바르게 되돌릴 방안을 건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이덕형 선생이 최고의 요직을 맡으면서 세운 큰 공과 대비되어 고난의 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는다. 임진왜란은 조선 전체의 큰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덕형 선생 개인적으로도 힘겨운 시기였다. 그가 명나라에 원군을 청하러 촉급한 길을 떠났을 때, 이덕형 선생의 부인이 자결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덕형 선생의 부인은 시아버지가 살고 계신 강원도 안협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다 왜적이 안협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백암산으로 피신하였다가 왜군에게 몸을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여 바위에서 뛰어내려 순절했다. 이외에도 그는 왜란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조하는 일에 그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다.

용문사

17 최우리



▲ 용문사 대웅전, 한국관광공사

용문사의 역사

현재 용문사는 용문산 관광단지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있는 절이다. 이러한 용문사는 913년(신덕왕 2) 대경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경순왕이 친히 행차하여 창사하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렇듯 용문사의 역사는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용문사는 신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속에서 등장한다. 고려시대에는 우왕 때 지천대사가 개풍 경천사의 대장경을 옮겨 봉안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조안화상이 중창하였다. 이후에는 1447년(세종 29)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어머니인 소현왕후 심씨의 원찰로 삼으면서 보전을 다시 지었다. 그리고 1457년(세조 3) 왕명으로 중수하는 등 중, 개수를 거듭하였다. 이렇게 조선 초 용문사는 절집이 304칸이나 들어서고 3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모일만큼 번성했다고 전한다. 조선 중 후기에도 1480년(성종 11) 처안스님이 중수한 뒤 1893년(고종 30) 봉성 대사가 중창하였다.

근대에 들어서서는 대한제국 당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 용문사와 용문산이 양평일대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의 근거지로 사용되었다. 양평 지역은 서울, 경기도 여주 일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신이나 군수품 조달에서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용문산이 자리잡고 있어 유격전에도 유리했다. 특히 군대 해산 직후에는 많은 의병들이 용문산으로 모여 양근읍내 또는 지평 등지를 습격하여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고, 지평군수 김태식을 처단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은 정미의병[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이

유로 발생한 의병.] (1907) 당시 용문사에 불을 질러 사찰의 대부분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취운스님이 큰방을 중건한 뒤 1938년 태옥스님이 대웅전, 어실각, 노전, 칠성각, 기념각, 요사들을 중건하여 유지하던 중 그마저 6.25전쟁 때 파괴되어 일부만 남게 되었다. 1982년부터 대웅전, 삼성각, 범존각, 지장전, 관음전, 요사채, 일주문, 다원등을 새로 중건하고 불사리탐 미륵불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용문사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다시 중건되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1100년된 소나무와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용문사를 방문하고 있다.

용문사 은행나무



▲ 용문사 은행나무, 한국학중앙연구원

현재 용문사에서 가장 큰 볼거리를 찾는다면 나이가 약 1100살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그것이다. 이 은행나무는 용문사가 신라시대부터 지나긴 역사를 가졌음을 증명해주는 유산이기도 하다. 이 나무는 높이가 42m에 달하고 뿌리부분 둘레가 15.2m인데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로서 천연기념물 제 30호로 지정 및 보호되고 있으며 조선 세종 때 당상직첩[堂上職牒, 정3품보다 높은 벼슬.]의 벼슬을 받을 정도로 신령시 되고 있는 나무이다. 나무에 여러 전설들이 전해지는데 우선 신라시대의 두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통일신라 경순왕(재위 927~935)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하던 중

심었다는 전설과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쫓아 놓은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용문사의 은행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이 나무를 자르려고 나무에 톱을 대었을 때 톱을 댄 자리에서 피가 나와 나무 베는 것을 중단했다는 이야기와 정미의병 당시 의병들이 용문사를 근거지로 활용하자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 나무만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가 소리를 내어 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종이 승하했을 때 커다란 가지 한 개가 부러지고 8.15 광복, 6.25전쟁, 4.19, 5.16 때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9월 23일

둘째 날

1. 영릉(세종)
2. 영릉(효종)
3. 명성황후 생가

영릉(英陵)

16 최윤환



▲ 영릉, 최윤환

위대한 성군의 능

영릉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의 사적 제 195호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하였던 조선의 제 4대 왕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를 합장한 무덤이다. 세종 28년에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현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안장하였고, 세종도 승하하면서 그 곳에 안장되었고, 영릉은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풍수 지리가였던 최양선이 소헌왕후만 매장되었을 때부터 그 곳의 터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세조가 통치하던 때에도 영릉의 자리가 불길하여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서거정이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가 예종 원년인 1469년 현재의 자리로 이장되었다.

영릉의 조영은 병풍석[능(陵)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의 위쪽 둘레에 병풍처럼 둘러 세운 긴 네모꼴의 넓적한 돌]이 생략되었고, 무덤 안에 돌로 된 방을 만드는 석실 구조 대신에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고 그 사이를 석회로 메우는 회격인 것이 특징이며, 능 앞에 능 앞에 두는 돌인 혼유석과 무덤 앞에 세우는 등인 장명등이 두 개가 놓여 있어 이를 통해 합장릉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영릉은 “왕의 숲길”이라는 길로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과 도보로 연결

되어 있으며, 주변 교통으로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 여주역, 세종대왕릉역과 광주 시 일반좌석버스 111이 있다. 위대한 성균이자 학자가 자고 있는 영릉은 여주를 방문하는 사학도들에게 경이로움과 흥미로움을 선사한다.

능의 주인, 세종대왕

세종은 조선의 제 4대 왕이며 그의 정식 묘호는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다. 그의 이름은 도(禔)이며, 태종 6년인 1397년 태종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여 노름을 즐기는 세자였던 장남 양녕대군과 비교되었고, 태종의 사랑을 받았다. 세자 양녕은 태종의 야단과 당시 충녕대군이었던 세종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멀리하며 더욱 노름에 정진하다가 폐세자가 되었고, 충녕이 세자가 되었으며, 1418년 태종의 양위로 왕이 되었다.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조선 초의 개국공신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 과거를 통해 정계로 진출한 유학자들이 조정에 들어섰다. 세종과 그의 세자, 신하들은 여러 방면에서 조선을 발전시켰다. 세종 대에 각각 최종 직위로 영의정과 좌의정에 오른 황희와 맹사성은 강직한 정치가로서 세종을 보좌하였고, 농업과 국방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무신 최윤덕과 김종서는 북방 개척을 통하여 조선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세종은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나 고려 시대에 유명무실해진 집현전 제도를 회복하여, 집현전에 서적을 여럿 배치하고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변계량 등의 대학자들이 유망한 학자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세종의 특별대우를 받은 학자 이수능은 세종에게 애민정신 등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다. 세종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초, 이순지, 장영실 등이 물시계를 제작하고 농사직설 편찬을 주도하였으며, 혼천의를 제작하여 천문학 또한 발전시켰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



▲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28년, 국보 70호,
네이버캐스트 위대한 문화유산

세종은 위대한 통찰력으로 신하를 잘 등용하여 조선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지만, 스스로도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바로 조선의 독자적인 문자 훈민정음 창제이다. 당시에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과 신하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세종은 거의 홀로 문자를 만들어야 했으며, 훈민정음이 완성되고서야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에 자신들만이 문자를 안다는 권위의식을 갖고 있던 양반들은 대부분이 반발하여 최만리가 상소문을 올렸는데, 세종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할 말이 없어 자신의 말을 재반박하지 못한 신하들에게 벌을 내렸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문을 알지 못하는 평민들에게 배우기 쉬운 문자를 보급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유학의 덕을 배우게 함이었다.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인 훈민정음은 시대와 함께 변하며 오늘날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를 제치고 한반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역사를 정교 과정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 책을 펴낸 대중 역사가 박영규는 세종을 ‘위대한 왕이자 대단한 인격자, 걸출한 인간, 한 사람의 학자, 인간미 넘치는 선비, 공평무사한 판관’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그의 업적은 ‘조선왕조 전체의 주춧돌이 되고, 대들보가 되었다’라고 적었다.

영릉(寧陵)

17 류다영



▲ 영릉(寧陵)의 모습, 문화재청

효종과 인선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 영릉(寧陵)

‘영릉(寧陵)’이란 조선 제 17대 효종(孝宗, 재위 1649~1659)과 그의 부인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의 무덤이다. 왕릉과 왕비릉을 좌우로 나란히 두지 않고 위, 아래로 두는 쌍릉의 형태로 되어있다. 풍수지리에 의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왕릉 중 최초이다.

효종, 그는 누구인가?

‘효종(孝宗)’(출생 1619~사망 1659)은 조선 제 17대 왕(재위 1649~1659)이며, 인조의 둘째 아들이다. 1624년(인조2)에 봉림대군(鳳林大君)에 봉해졌다. 1636년(인조14)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아우인 인평대군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1937년 강화도가 함락되고, 효종은 인조의 삼전도에서 청 황제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를 행하는 치욕적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듬해 소현세자(昭顯世子), 척화신(斥和臣)등과 함께 청나라로 볼모로 8년 동안 잡혀갔다. 인조의 미움을 받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돌아온 후 1645년 갑작스럽게 변사하여 봉림대군이 세자에 책봉 돼, 1649년 인조가 사망하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효종은 대동법을 실시하였고, 또한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용해 함께 북벌을 계획해 나갔다.

북벌을 꾀하다.

효종은 신하들과 함께 은밀히 북벌계획을 수립해, 군사 양성 및 군비를 확충했다. 그러나 북벌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들도 존재했다. 이 때, 북벌을 주장하던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 남인은 서인을 견제 및 지지하며 세력 균형을 모사했다. 그 당시에 효종의 북벌정책을 지지한 박서, 원두표(元斗杓) 등을 차례로 병조판서에, 무장 이완(李浣)을 훈련대장으로 임명하여 군사력을 키우는데 힘썼다.

한 때, 유배 중이던 김자점이 청나라에 북벌정책을 밀고하여 기밀이 누설되어 고초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잘 무마하고 계속 북벌을 위한 군비를 확충하며, 군제의 개편, 무관을 우대하는 등용 정책을 펼쳤다. 효종이 즉위한지 8년째(1657년) 북벌정책은 사대부의 반대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송시열(宋時烈)이 주도해, 군비확장으로 인한 백성의 생활고를 언급하며 비난하였다. 효종은 사대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돼, 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용(重用)하여, 사대부와 북벌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조판서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송시열과 병조판서 송준길(宋浚吉)이 추진하는 북벌정책은 명분만 있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1659년 5월 4일 효종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가 추진했던 북벌정책도 소멸되었다.

사실 북벌을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군사를 양성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전쟁 후의 혼란기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수법이었다.

자신의 몸을 먼저 보지 못한 효종

효종은 몸이 건강할 것 같은 이미지와 다르게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다. 면역력이 약한 이유로 인조의 국상을 치르며 얻은 과로와 형의 아들 대신 왕위에 올랐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들기도 한다. 감기가 자주 걸렸고 소갈[당뇨병] 때문에 고생했다. 소갈증과 감기는 종기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병들의 후유증인 귀밑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종기에 침을 놓아 고름을 조금 짜내었는데, 통증이 잠시 완화되어 효종이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결국 피가 멈추지 않아 1659년 5월 4일 급서했다.

결국 효종에게 침을 놓았던 신가귀(申可貴)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사실 동의보감에는 ‘소갈병이 생긴 지 100일이 지나면 침이나 땀을 놓지 못한다. 침이나 땀을 놓으면 침이나 땀을 놓은 자리에 헌데가 생기고 그곳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멎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종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치료하지 못한 어의의 잘못도 있으나, 자신의 몸을 먼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사혈을 명령한 효종의 행동도 효종을

죽음으로 이끄는 데 한 몫 했다.

명성황후 생가

17 이응경



▲ 명성황후 생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

불꽃처럼 살다간 명성황후

명성황후(1851~1895) 생가는 조선의 국모가 탄생한 곳이다. 혼란스러운 조선 말기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의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때로는 무너지는 왕실의 권위를 바로 잡으려는 외교술로, 그리고 궁궐을 습격한 일본인들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최후의 모습으로 무너지는 국가의 아픔을 상징하는 명성황후 민비의 탄생지다. 외척의 왕권개입을 무엇보다 경계하였던 흥선대원군은 아무 보잘것없는 가세를 지닌 민씨를 고종의 왕비로 선택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선택으로 고종의 왕비가 된 명성황후의 생가 앞으로 자리하는 기념관은 명성황후의 친필과 시해장면을 담은 영상물 등이 전시되어있고 안채만이 남아 있던 이곳은 행랑채와 사랑채 등이 복원되었다.

명성황후는 조선국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정적인 모습과 서구의 근대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열강 세력의 균형을 위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한 여인의 모습은 모두에게나 추모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명성황후는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왕비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친정이 단출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왕비를 내세운 안동김씨의 외척 세도정치를 무척이나 경계하던 대원군은 가문적으로는 그다지

빠지지 않으나 주변에 힘이 될 사람은 별로 없는 명성황후를 전격적으로 왕비로 간택했다. 물론 제대로 된 왕비 간택 절차를 거쳤지만, 이 간택 절차 이전에 대원군은 이미 아버지가 없고 남자 형제 없는 민씨 집안의 처녀를 며느리로 점찍고 있었다. 몰락한 친정을 둔 왕비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원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꿈쩍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세력을 서서히 형성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외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경복궁 중건 등으로 인한 대원군의 거둬들인 실정이 왕의 친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증폭시키고 있었기에 이를 적극 이용하였다. 고종은 친정 직후 대원군 집권 시의 쇄국[다른 나라와의 통상과 교역을 금지함]을 풀고 일본과 수교하였고 이후 차례로 서양의 열강들과 수교를 맺어나갔다. 그러나 이전의 강력한 통상수교거부정책[쇄국정책]으로 미처 외세에 대해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개국 이후 내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대원군과의 대립과 기존 세력과의 갈등, 외적으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국을 운영하였다.

명성황후에 대한 외국 측의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 그녀가 가냘프지만 영민하고 총명하며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여인이었다고 쓰여 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조차도 그녀를 동양의 호걸, 여장부로 평가했다. 지나치게 총명하고 정치에 적극적이었기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시대를 앞선 매우 현대적인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명성황후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신변은 늘 불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들어온 일본을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축출하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은 후안무치한 음모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일명 ‘여우사냥’으로 불린 명성황후의 시해시도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가장 방해요소로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의 옥호루에서 명성황후는 난입해 들어온 일본 낭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당했다. 시신마저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살라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사건]이다. 외세에 의한 왕비살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내에서는 일본에 왕비 살해의 원한을 갚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을미의 병이 일어났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시아버지였던 대원군은 이 틈에 잠시 정권을 되찾는 듯하였지만, 고종이 이미 아버지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관에 안전을 의탁하는 아관파천을 행함으로써 곧 실각하였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국격을 훼손당하고 망국으로 가는 길에 올라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참고문헌

남양주 지역개관

- ▶ 한국고전번역원, 『신증동국여지승람』
- ▶ 국립중앙도서관, 대동여지도 웹 지도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1997

양평 지역개관

- ▶ 한국고전번역원, 『신증동국여지승람』
- ▶ 국립중앙도서관, 대동여지도 웹 지도

여주 지역개관

- ▶ 김춘석, 『여주시 승격에 따른 변화와 의미』,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 ▶ 이영선, 『조선 후기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홍릉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1997

유릉

- ▶ 문화재청, 『문화재지역 수목보존관리지침』, 2004, 24쪽.
- ▶ 문화재청, 『조선왕릉 전통조경관리지침』, 2013, 24쪽

광해군 묘

- ▶ 한명기, 『광해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2000

정약용 생가와 묘소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1997
- ▶ 김민정, 『『목민심서』를 통해 본 바람직한 공직자상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20-28
- ▶ 강혜중, 『흙흙신서(欽欽新書)의 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9, p.13-18
- ▶ 이주영, 『정약용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 대한 문학치료적 고찰』, 『문학치료연구』, 제34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p.221-247

한음 이덕형 선생 영정각

- ▶ 김문준, 『한음 이덕형의 생애와 실천사상』, 한국인물사연구소, 제7호, 2007, p.1-9.
- ▶ 김병국, 『한음 이덕형의 문학 연구』, 한국인물사연구소, 제 7호, 2007, p.1-9.

용문사

- ▶ 김상기, 『한말 양평에서의 의병항쟁과 의병장』, 호서사학 제 37집, 2004

영릉(세종)

- ▶ 이창환, 『고문헌을 통해 본 영릉(英陵)의 원형공간과 시공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권 4호, 2012
- ▶ 박영규, 『세종대왕과 그의 인재들』, 들녘, 2002
-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릉(효종)

- ▶ 『인조실록(仁祖實錄)』
- ▶ 『효종실록(孝宗實錄)』
- ▶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
- ▶ 『동의보감(東醫寶鑑)』
- ▶ 차문섭, 『조선조 효종의 군비확충』, 『단국대학교논문집』 1·2, 1967-1968
- ▶ 이다지, 『이다지 한국사 : 전근대 편』, 브레인스토어, 2015

명성황후 생가

▶ 유흥종, 『명성황후』, 현대문학북스, 2001

만든 사람들

제작자

13임정근

16김기영

16최윤환

역사기행반 17학번

편집자

16 최윤환

17 권오현

17 천지현

감수

이상국 교수님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 史 紀 行 班

2017. 9.